

# 기괴한 ~ 에이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 제 5 장



가르디아양 수도원 ~ 1347년 8월

터널의 햇불은 오래전에 꺼졌고, 하나만 기울어져 있었다.

벽걸이에 걸린 전등갓이 나사로의 아담한 지하 묘지 입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밝은 불빛 아래, 이반은 커다란 몸을 문간에 바짝 붙이고 서서 편지 한 통을 탐독했다. 방 안에서는 라자로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나무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었다.

라자로는 음식을 한 입 베어 물면서 "수도사님은 무슨 책을 읽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살비티노 신부님께 내일 보낼 편지입니다 ." 이반은 편지 에 눈을 파묻은 채 대답했다 .

“그는 누구죠?”

"하급 평의회 소속 수도사 한 분이 이곳 수도원에 살았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말이죠 ."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 이탈리아의 칸첼로 에는 또 다른 공의회 수도원이 있습니다."

“왜 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는 내게 신세를 졌어. 그리고 우리가 이탈리아로 떠나면 , 그가 작은 일 하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

“이탈리아요? 그런데 부르고뉴는 어떨죠?”

“이탈리아가 먼저죠.”

“오디노 수사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죠?”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동의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살비티노 수사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빛을 졌습니까?”

이반은 잠시 책에서 시선을 떼었다. "됐어, 라자루스. 이제 먹어."

라자루스는 한 입 더 베어 물고 잠시 씹은 후 이반에게로 돌아섰다. "수도사님께서 안 계신 동안, 어떤 남자가 여기로 끌려와 감방에 갇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수도사님?"

“이 죄수는 이단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는 내일 아침에 끌려갈 것이다.”

“그가 무슨 짓을 했지?”

“나사로야, 그는 네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어서 먹어. 늦었으니.”

나사로는 편지에 몰두해 있는 이반을 슬쩍 쳐다보았다. 그는 그릇에서 고기와 빵을 조금 꺼내 침대 밑으로 던지고는 다시 먹기 시작했다.

“아마 배가 고프 걸 거예요.” 라자루스가 말했다.

이반은 목을 가다듬고 편지를 다시 접어 성직자 옷자락 아래에 넣었다. "밥 마저 먹으렴, 아들이. 네가 그 사람 가까이 가는 걸 원치 않는다. 나를 데리러 오겠니?"

“그래요, 수도사님.” 이반은 그릇 안을 들여다보며 라자루스가 마지막 빵 조각을 마스크 아래로 집어 넣을 때까지 한 입 한 입 지켜보았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반은 빈 그릇을 들었다. 라자루스는 재빨리 이불 속으로 숨었다.

이반은 그를 이불 속에 덮어주었다. "기도할래?"

“네, 수도사님. 그리고 저는 그 죄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 좋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잘 주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수도사님.”

이반은 벽에서 출입구 햇불을 떼어내고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방을 나서 지하 묘지를 빠져나갔다.

담요 더미 너머로 라자루스는 이반의 햇불 빛이 복도를 따라 퍼져나가면서 문 앞의 모습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이반이 지하 묘지 계단을 오르는 소리, 돌바닥에 샌들이 부딪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멀리서 문이 광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라자루스는 벌떡 일어섰다. 부모의 지시보다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침대 밑에서 음식을 꺼내 천으로 싸서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따라 올라갔다. 베니온 터널이 왼쪽에, 짧은 복도가 오른쪽에 있는 터널 교차로에 다다르자 그는 오른쪽으로 돌아 짧은 감방 통로로 들어갔다. 벽에는 세 개씩, 총 여섯 개의 감방 문이 나란히 있었다. 죽은 자를 안치하는 납골당이 아니라, 이 방들은 산 자를 가두는 감방이었다. 문에는 좁은 창문이 나 있었고, 그 창문에는 미닫이 철판이 달려 있었다.

라자로는 오른쪽 맨 끝 감방으로 다가갔다. 그는 창살을 밀어 열었고, 종얼거리는 기도 소리가 멈췄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라자로입니다. 원하시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방의 빨대가 바스락거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 나사로. 주 그리스도 예수 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리라."

나사로는 창문을 통해 음식을 건네주며 "그분은 복되십니다. 음식을 받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죄수가 그것을 되찾자, 라자로는 그의 얼굴을 슬쩍 보았다. 그는 금발에 갈색 눈을 가진 젊은 남자였고, 얇은 수염 사이로 날렵한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정말 감사합니다." 죄수가 대답했다. 그는 문에 기대어 웅크렸고,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웅크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과 5cm 정도의 참나무 판자만 남았다.

라자로는 문을 쏘아댔다. "너 왜 여기 있어?"

죄수는 입에 음식을 가득 문 채 대답했다. "이단 혐의로 기소되어 종교재판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이단입니까?"

죄수는 음식을 삼키고 설명했다. "주교 한 분이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우리 마을에 와서 모든 사람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과 직업을 기록장에 적어 놓았습니다."

십일조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하기 위해 장부를 사용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참회 형제회, 즉 성 프란치스코 제3회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십일조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나사로는 물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도적 가난 속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도 없고 장사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할 수 있고 그분께 십일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밭의 십일조는 손대지 말고, 짐승의 십일조는 풀어 주고, 과일의 십일조는 따지 말고, 네 음식의 십일조는 굶주린 사람에게 주어라.

십일조는 예물이니, 그것을 위해 따로 떼어 놓아라."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십일조로 건을 수 없습니다. 성전은 오직 예배 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아둔 십일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드리는 것이 됩니다. 이는 누가복음 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사를 압니다, 각하. 주교님과 병사들에게 이 가사를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은 그들을 알아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일하러 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떠나면 너희 모두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도망치셨나요?"  
나사로는 머리를 굽적이며 돌바닥을 훑어본 후 시선을 돌렸다.  
문 앞에서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직업을 택하겠다고 말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당신의 직업이라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가르침의 십일조를 그들에게 바치세요."

죄수는 낄낄거렸다. 라자로는 어리둥절한 개처럼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라자로. 나는 신 앞에서 맹세를 해야 해. 종교재판소는 이미 나를 유죄로 판결할 질문들을 준비해 놨지. 맹세하고 거짓말을 할 순 없어. 이미 형벌을 받았으니 화형에 처해질 거야."

"화형이라고? 교회가 사람들을 화형시킨다고?"  
"수백 구; 모두 불에 타습니다."  
"교회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곳인데, 어쩌서 사람들을 불태워야만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십일조를 내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고수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마침내 라자로는 반박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마태 복음에는 '모든 죄와 악담은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에 의한 악담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나사로야,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자로가 말을 시작했다. "저는 그들을 압니다, 선생님. 하지만 만약 그들이 당신을 불태운다면—"  
"예수님처럼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부당하게 저를 정죄하는 자들을 피해 도망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 만약 그들이 선생님을 불태워 죽인다면—"

"예수님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고 유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를 주님 앞에서 유혹하지 마라."

"선생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정말이로다, 나사로."

"당신이 그들이 당신을 불태울 것을 알면서도 왜 내게 이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이 문이 열려 있든 닫혀 있든 자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자유는 그 자체입니다." 아내에."

"제가 이 문을 열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도망가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소. 나사로, 자네가 또 나를 시험하려는 것이오?"

"아니요, 선생님. 다만, 왜 당신께서 스스로를 구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사로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단다."

"당신 말대로 그들이 당신을 불태워 죽일 건가요?"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생님, 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없을까요?”

"아마도 자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겠지. 그런데도 학식이 있군. 혹시 성직자 집안의 아들이가?"

"그래요."

"아! 바로 그거야. 사람들이 말을 길들이고 소떼를 몰듯이, 너희는 말이 자 소인 거야.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성직자 소년은 함께 섬기는 수도사가 되는 거지.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낳는 거야."

나사로는 고개를 숙여 그 말씀의 지혜를 곰곰이 생각한 후 다시 문 쪽으로 돌아섰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스트로는 발걸음을 옮겼다. "당신의 너그러움과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제 기도를 드리러 가야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며, 올리비에의 성 베드로 요한의 유언도 찬송받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이 찬송받으시옵소서." 죄수는 문에서 기어가며 나지막이 기도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나사로."

나사로가 그를 불러세웠다. "그리스도 안의 가난한 사람아?"

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여?" 나사로가 다시 외쳤다. 그러나 그 죄수는 더 이상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라자로는 감방을 나와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러나 자기 방으로 향하던 중, 복도를 벗어나 자마자 바로 맞은편, 본선 통로 옆에 있는 터널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마치 나무가 부서지는 듯한 그 소리는 베니온 터널, 즉 더 오래된 터널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졌다.

수많은 지하 통로들. 라자로가 기억하는 한, 마치 돌 에 새겨진 법 처럼, 변치 않는 규칙이 하나 있었다. 바로 베니온을 제외한 모든 지하 묘지 터널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반은 그에게 베니온의 위험한 지붕 돌 아래로 발을 딛는 것을 금지했는데, 그 돌들은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썰 정도로 험하게 매달려 있었다. 게다가 베니온은 닫힌 묘실 문들만 있는 막다른 통로에 불과했다.

수백 년 동안 녹이 슬어 꿈쩍도 할 수 없는 자물쇠 때문에, 그는 굳이 그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반은 헌신적인 부모들이 흔히 그렇듯, 라자루스의 싹트는 독립심을 과소 평가했던 것이다. 자식을 믿고 못 본 척했던 것이다.

나사로는 베니온 입구 앞에 서서 속이 텅 빈 안에서 울려 퍼지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다시 한번, 그는 무거운 짐의 무게에 짓눌린 널빤지가 삐걱거리는 소리 와 같은 소음을 들었다.

부담감.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고, 유혹의 열매가 그를 매료시켰으며, 독립심이 그를 이끌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주위를 둘러본 후 베니온 터널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수많은 납골당 문들을 스치듯 지나치며 그저 흠뻑 쳐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복도 끝에 다다라 소동의 근원을 발견했다. 마지막 납골당 문은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었고, 문을 가로지르는 날카로운 파편들이 줄지어 박혀 있었다.  
수직 판자.

이미 나무 문과 돌 문들 사이에는 틈이 벌어져 있었고, 쇠자물쇠는 부서져 있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문과 문들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니, 커다란 벽 오른쪽에 직사각형 모양의 움푹 파인 곳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네 층으로 쌓인 이 무덤들은 이미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하 납골당이였다. 안쪽에는 탁자가 놓여 있어 더 이상 시야를 가렸다. 녹슨 철제 십자가가 뒷벽에 걸려 있었지만, 절반밖에 보이지 않았고, 어두컴컴한 방은 더욱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틈새로 스며든 냄새를 맡아 수 세기 동안 무덤에서 새어 나오는 뒤섞인 냄새를 감지했다. 썩은 천 냄새, 분필처럼 하얀 뼈 냄새, 묵은 버섯의 곰팡이 냄새, 그리고 축축한 돌의 달콤한 향이 뒤섞여 있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라자로는 손가락을 틈새에 넣어 잡아당겼다. 그가 문을 더 벌리자 문이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다. 새 나무가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심지어

"광!" 순식간에 문이 폭발하며 나무판자 파편들이 맞은편 벽에 흩날렸다. 문 위쪽 아치형 돌들이 무너져 내렸고, 중심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보다 더 위쪽에서는 벽의 큰 부분과 인접한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그 잔해가 그의 주위로 쏟아져 내렸다. 굉음이 몰아치는 혼란 속에서 그는 벽의 가장 먼 구석으로 몸을 던졌고, 벽의 석조물 일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돌바닥에 부딪히는 물소리 외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먼지와 잔해가 가라앉자, 라자로는 더럽지만 다치지 않은 몸으로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그는 후드 아래로 개처럼 생긴 귀를 쫓긋 세우고 소리를 찾아 헤맸다. 떨어지는 물소리는 마치 맥박치는 듯한 굉음처럼 들렸고, 바닥에 떨어지는 조약돌 소리는 깊은 협곡으로 바위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쥐 발소리는 천둥 같은 발굽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라자로의 시선은 여전히 베니온 터널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하 묘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도, 돌계단을 오르내리는 수도승의 샌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멀리 떨어진 감방 통로에서 죄수가 짊어미 위를 질질 끌며 걸어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라자로는 주변의 잔해를 살펴보았다. 터널의 끝 벽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돌들이 그의 옆으로 떨어져 작은 움푹 패인 자국을 제외하고는 그는 멀쩡했다. 부서진 벽 부분은 마치 끝없는 구멍처럼 보였다. 이미 3세기 동안 묵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바람이 그 구멍에서 새어 나왔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폐쇄된 베니온 터널의 끝처럼 보였던 곳은 무너져가는 가짜 벽에 불과했고, 통로는 눈에 띄게 더 이어져 있었다.

나사로는 바람이 휘몰아치는 구멍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고, 그의 두건은 바람에 펄럭였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계속 이어지는 터널은 봉쇄되지 않은 구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터널 벽을 따라 납골당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어느 곳에도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마치 완전히 완성되기도 전에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험거워진 돌 틈 사이로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에게는 그 납골당들이 유골을 안치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첫 번째 납골당에도, 두 번째 납골당에도 유골은 없었고, 시신은 항상 밑바닥 돌에 녹슨 얼룩을 남겨 수 세기가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터널을 따라 계속 걸어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쳤다. 비어있고 미완성된 납골당.

납골당의 공기는 깨끗했지만, 그가 복도를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공기는 죽음의 기운을 풍겼고, 고대 유물의 오염으로 그 기운은 더욱 짙어졌다.

라자루스는 더 깊숙이 들어갔다. 터널 끝에서 그는 마지막 납골당 입구가 다른 곳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짧고 해진 문이 있었지만, 무너져가는 돌담의 잔해로 막혀 있었다. 마치 나중에 새로 쌓은 돌담이 드러난 문의 흔적을 감추려는 듯했다. 갈라진 문틈 사이로 썩은 냄새가 새어 나왔다. 그는 험거운 돌들을 뜯어내고, 거미줄을 헤치고, 움푹 패이고 벌레 먹은 듯한 갈라진 판자들을 밀어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 줄기 빛도 없었지만, 짧고 해진 문 잔해 너머의 그 순수하고 죽음처럼 고요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라자루스의 굵 주린 눈동자는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마치 완벽한 야행성 포식자의 눈처럼, 그의 눈동자는 어둠의 비늘을 벗겨내고 모든 것을 보았다.

지하실은 한때 거주지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냄새는 분명히 무덤 냄새였다. 깨진 토기, 썩은 천, 먼지 쌓인 유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라자로는 벽 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수도승이 감싼 유해는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열린 무덤들은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둔 창고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냄새가 공중에 감돌았다. 희미하게나마 잉크 냄새가 진동했다. 라자로는 방을 가로질러 한때 책상으로 쓰였던 좁은 탁자와 벤치 앞에 섰다. 탁자 상판은 굵은 자국과 밀랍, 잉크 얼룩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 위에는 굳어버린 잉크병이 텅 빈 채 놓여 있었다.

그가 탁자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다.

그는 고개를 기울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잉크병도, 얼룩도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무언가 모호하면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는 코를 탁자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까지 가져가 냄새를 맡았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뒤로 물러나 책상 위에 몸을 세웠고, 거기에 그것이 놓여 있었다. 라자루스는 먼지를 닦아냈다. 그의 감각을 괴롭히는 호기심은 오직 눈을 통해서만 느껴졌다. 먼지와 이물질이 제거되자 책상에 남은 굵은 자국들이 윤곽을 드러냈고, 그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무작위로 새겨진 듯 보이지만, 질서정연한 상징들이었다. 그것들은 상형문자 그림이 아니라, 기하학적 도형들이 연속적으로 늘어난 형태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도형들의 위치와 간격이 발음을 결정지었고, 그 의미는 나사로의 이름에 담겨 있었다.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패턴으로 원과 선이 글자, 단어, 문장을 이루

고 마침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미의 흐름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 글귀는 프랑스어도 라틴어도 아니었고, 깃펜과 양피지의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은 기묘한 언어였다. 사실, 그 언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인간도 책상 위에 그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나사로는 어렵게 그 단어를 발음하고 그 의미를 알아냈다.

오늘은 동생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 무덤에는 내 모든 말이 담겨 있다.  
납골당 한쪽 구석에,  
높이가 돌 네 개 높이입니다.  
네 번째 돌이 험거워져 있습니다.

나사로는 지하실 모퉁이를 바라보았다. 바닥 돌보다 정확히 네 개의 벽돌 높이 짝 되는 곳에, 닳아빠진 돌 가장자리를 따라 모르타르가 떨어져 나간 좁은 틈이 있었다. 그는 벽에서 돌을 떼어내고, 오래된 거미줄이 있던 움푹 들어간 곳에서 누렇게 변색된 두꺼운 두루마리를 꺼냈다. 그는 그것들을 책상 위에 펼쳤다.

맨 위 페이지에는 편지가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 형제여, 너를 위하여—

주님의 해 164년 9월 28일, 저는 이로써 수많은 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머지않아 저는 떠나야 할 테니까요.

죽음의 상태를 압니다. 그 냄새가 저를 집어삼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토록 큰 슬픔과 악이 당신 아래에서 만연하도록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믿음은...

불꽃은 날아가 버렸다. 내 가슴속 불꽃은 꺼져버렸고, 나는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일 뿐이다.

저는 의회에 대해 경고해야겠습니다. 의회의 맹세에 따라 저는 계약을 제안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계약의 내용은 이랬다. 내가 통역 기술을 이용해 그들에게 문석에 새겨진 글자를 해독해 준다면, 그들은 나에게 자유를 허락해 줄 것이다. 그 자유란 내가 영원히 파수꾼 수도원을 떠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나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두 계절이 꼬박 흐르는 동안 나는 그들이 내 방으로 하나씩 가져다준 구절들을 번역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감금은 더 이상 내게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내 방을 마치 내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꾸며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었습니다. 내 사슬이 풀리거나 교황 경비병들이 물러나고, 그들이 내 문 밖에 영원히 주둔하며 내 얼굴을 뒤덮은 햇불 연기가 사라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내게 부족한 것은 오직 자유뿐이었고, 그 꿈은 마치 차가운 족쇄처럼 내 팔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계절 중반쯤, 나는 떨쳐낼 수 없는 슬픔에 빠졌다. 그 꿈마저도 쫓아내고 싶었다. 문석에 새겨진 글을 통해 그 목적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 괴로워 기도를 그만두었다.

나의 믿음은,

나는 영원히 잃어버릴까 두렵다.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나는 그분의 방법을 결코 알 수 없겠지만, 그분 안에서 나의 자리는 언제나 알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초월점술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평의회는 격분했다. 평의회는 내 거처에서 모든 가구를 치우고 나를 그들을 위해 일하기 전의 끔찍한 환경으로 되돌려 놓았다. 나는 병약해졌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나는 자유를 보장받겠다는 재확인 조건 하에 초월점술을 마무리하기로 동의했다.

그 후로 저는 일을 마쳤고 세 계절이 지났습니다. 한동안 저는 감금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수도원장은 제가 당분간 사제들에게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만 말했습니다. 저는 거의 한 계절 동안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숙소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보아 제가 더 이상 공의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들이 처음부터 저를 이 속박에서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잉크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쓸 말이 없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오늘 아침 일찍 수도원장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절대 풀려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은 공의회 최종 결정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에 새겨진 위치와 글귀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의회는 제게 죄 사함과 고통 없는 수면제, 그리고 성스러운 장례를 약속했습니다.

아쉽게도, 그가 내일 돌아올 것이기에 이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은 아직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공포를 마주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약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형제에게 이 문석에 새겨진 모든 원본 비문을 남겨둡니다. 부디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그리고 제 삶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나는 달콤한 슬픔의 기억만을 간직한 채 세월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닌 삶, 내 것이 아닌 이 무덤 속에서 살았지만, 온전히 내 것이었던 한순간의 꿈, 그 어떤 자유보다도 더 달콤했던 자유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래요-

성직자 나라신  
—시의회 통역사

차가운 바람이 책장을 스치며 썩어가는 뼈의 냄새를 실어 날랐다. 그는 책상에서 책장을 집어 들고 납골당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맞은편 벽 가장 깊숙한 곳에는 무언가가 천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감춰져 있지 않았다. 그는 천에 다가갔다. 라자로가 그 천을 움켜쥐자, 거미줄처럼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썩어가는 천을 벗겨내자 그 안에 무엇이 드러났는지 보았다.

“아!” 그는 마치 천에 물린 듯 갑자기 천을 놓아버렸다. 숨이 턱 막혔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온몸에 한기가 몰려왔고, 심장이 쿵광거렸다. 따끔거리는 통증이 온몸을 감쌌다. 그의 앞에는 잔인하게 사슬에 묶인 그로테스크 성인의 유해, 나라신의 뼈가 놓여 있었다. 그는 수 많은 시체를 보았지만, 그로테스크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두꺼운 송곳니가 인간의 두개골에 박혀 있었고, 날개 뼈가 시체 아래에 흩어져 있었다. 라자루스는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보다 훨씬 커진, 부패하고 사슬에 묶인 자신의 모습이었다!

나사로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비명과 굳은 침묵 사이에 압축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하면서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상태. 만약 그가 너무나도 생기 넘치지 않았더라면, 그의 심장은 죽음에게 멈추라고 애원했을 것이다.

그는 벌떡 일어나 나라신의 두루마리를 들고 지하 묘지에서 뛰쳐나왔다. 베니온 터널을 따라 날아올라 가짜 벽의 구멍으로 뛰어들어 흩어진 돌 틈 사이로 뛰어넘었다. 순식간에 그는 더럽혀지지 않은, 익숙한 자신의 방 안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불 속에 숨어 있었다. 고요함 속에서 그의 심장은 생각과 함께 빠르게 뛰었다. 그는 서둘러 두루마리들을 돛자리 틈새에 쑤셔 넣고, 모자끈을 점검한 후, 침대에 깊숙이 파묻혔다. 그는 자신이 더럽고, 속이 더럽혀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순수한 꿈을 꾸고 싶었다. 사슬에 묶인 자신의 끔찍한 모습만 아니면 뭐든 좋았다. 그는 이토록 외롭고, 위협받고, 심지어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심장이 쿵쿵거리고 마음이 괴로워지자 그는 뒤틀린 악몽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것은 공포라기보다는 지나치게 고조된 정신 상태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알몸으로 굽은 계단을 뛰어 올라 더 높은 곳에 있는 지하 묘지 입구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자유를 향해 질주했다. 터널에서, 무너져 내리는 죽음의 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심장이 쿵쿵거리릴 때마다 계단을 한 걸음씩 오르는 것 같았지만, 올라갈수록 입구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계단이 또 이어졌고, 어찌면 더 많은 계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늘에까지 올라갈 만큼 충분한 숫자였다. 그리고 영원처럼 느껴졌던 그 소름 끼치는 저녁 내내, 그 끔찍한 꿈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쿵 쿵쿵 직조기! 쿵쿵쿵 직조기!

~\*~

새벽녘 붉은빛이 가르디안 수도원을 물들였다. 하지만 수도승과 시종들은 숙소에 갇혀 있었고 아침 예배도 취소되어, 어두운 수도원 경내는 나람신의 지하 묘지처럼 생명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숙소 안에서는 사제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널빤지 침대 발치에 기대어 고통 없는 변신을 간절히 기도했다. 다른 이들 사이에서는 좁은 창틀의 돌 그림자가 흔들리며 안뜰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불안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반 수사는 감방 창문에 기대어 유령처럼 훑날리는 수도복들을 내려다보았다.

안뜰. 그는 떠오르는 태양을 훑듯 보고는 창틀에 손가락을 파묻었다. 아래쪽에서는 보니히 수도원장이 건장한 사제 세 명을 목욕탕으로 안내하면서 의식이 시작되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원장은 수도사들에게 “너희는 문을 잠그고 자리에 앉아라” 라고 지시했다. 창문으로. 너희 둘이서 저것을 가져와. 그리고 이빨 조심해!” 주지승은 동쪽 벽에서 가장 가까운 돌 탁자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탁자 윗부분은 숫처럼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이전 화재로 인해 심하게 탄 흔적이 역력했다. 두 명의 수도승은 어두운 목욕탕 안으로 사라졌고, 세 번째 수도승은 주지승을 돌아 새벽녘을 향한 닫힌 창살 사이의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발을 질질 끄는 소리, 신음 소리, 그리고 쇠뿔거리는 소리가 목욕탕 뒤편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조심해!” 보니히가 소리쳤다. 그는 옷 속에서 작은 플라스크를 꺼내 탁자 위에 몇 방울 뿌렸다. 그리고는 중얼거리며 기도했다.

건장한 두 수도사가 그로테스크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녀는 저항하며 그들을 끌고 갔다. “수도원장님, 햇빛이 벽을 넘어왔어요!” 창가에 있던 신부가 소리쳤다.

보니히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중얼거렸다. 수도사들은 그녀를 테이블로 끌고 갔다.

그의 원고에서 낭송됨; “Pater noster, qui es in caelis, sancti 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iat voluntas tua in terra—”

그로테스크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발을 딛고 붙잡은 자들에게 저항하며 몸부림쳤다.

그녀는 그들에게 “바웃! 에카 암 샤 틀라르!” 라고 외쳤다.

수도원장은 계속해서 “—in terra sicut in caelo. Panem nostrum cotidianum da nobis hodie—”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수도승들에게 쇠 소리를 내며 몸부림치면서 탁자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 애썼다. 승려들은 그녀의 손목과 발목에 가죽 끈을 채웠다. 끈을 잡아당겨 그녀의 균형을 잃게 만든 후 탁자 위로 끌어올렸고, 그녀의 날개가 승려들의 얼굴을 후려했다. 승려들은 탁자 양쪽에 자리를 잡고 각각 한 쌍의 끈으로 그녀의 손과 발을 돌판에 고정시켰다. 몸부림은 끝났다.

그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무릎을 꿇은 채, 그녀는 그저 주지 스님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보니히의 눈이 쓰여진 단어들 위로 굴러갔습니다. “—et dimitte nobis debita nostra, sicut et nos—”

그로테스크는 부드럽고 소녀 같은 애원조로 그의 말을 꿇었다. “샤트 나 카우트—흠? 카우트?”

보니히는 시선을 돌려 품에 안은 책에서 눈을 떼고 잠시 위를 올려다보았다. 온화하지만 몹시 괴로워하는 얼굴이 눈에 띄었고, 아름다운 푸른 눈동자에는 눈물이 맺혀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처음 보는 듯, 그녀가 자신이 평생 동안 본 그 어떤 그로테스크보다도 훨씬 더 인간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날개와 귀를 제외하면, 그녀는 건장하고 험악한 두 사제의 구속줄에 갇힌 가련하고 겁에 질린 소녀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보니히는 불안한 시선을 돌리고 말을 이어갔다. “—et nos dimittimus—” 보니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다시 말했다. “—et nos dimittimus debitoribus nostris—” 다시 목소리가 막혔다. 그는 말을 멈추고 몸을 돌려 목욕탕 건너편에 있는 신부에게 소리쳤다. “저주받은 창문을 열어! 당장!”

두 수도사는 밧줄에 기대어 몸을 뒤로 젖혔다. 그녀는 그들에게 쇠 소리를 냈다. 다른 사제는 나무 덧문을 잡았지만 망설였다. 그는 기괴한 여인을 돌아보며 얼굴을 찡그렸는데, 그때 보니히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발견했다.

“어서 그만둬, 수도사!” 보니히가 그를 꾸짖었다. 그러자 사제는 순식간에 셔터를 활짝 열었다.

햇살이 목욕탕 안을 환하게 비쳤다.

"끼익!" 날카로운 비명이 수도원 경내에 울려 퍼졌다. 목욕탕 창문 밖으로 재가 솟구쳐 올랐다.

목욕탕 문이 활짝 열리고 기침을 하는 보니히가 연기로 가득 찬 입구에서 비틀거리며 황급히 나와 눈을 비비며 서재로 향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머지 수도사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그들 중에는 또 다른 그로테스크 조각상, 즉 날개를 펼친 채 태양에 의해 쓰러진 또 다른 엘료 의 석상이 있었다. 무릎을 꿇은 자세가 굳어 있었고, 위를 향한 얼굴은 극도의 고통에 찬 화강암 같은 표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안뜰 건너편, 2층 기숙사 창문의 좁은 틈 너머로 은발의 키 큰 사제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흐느끼는 모습이 보였다. 기숙사 지붕 옆에서는 또 다른 눈이 수도사들과 그들이 모신 조각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안뜰의 매화나무 꼭대기에 앉은, 빛나는 까마귀의 작고 검은 눈동자가 그 위를 맴돌고 있었다. 세 명의 수도사가 가르디아의 최신 작품, 즉 이탈리아 중부의 칸 첼로 수도원에 전달될 마지막 '선물'을 성당 난간 위에 올리기 위해 옮기는 모습을 경건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

이반은 지하 묘지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계단을 내려가던 그는 불이 붙은 햇불을 들고 안절부절못하는 나사로를 발견했다.

이반은 계단에서 멈춰 섰다. "나사로?"

"수도사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이반은 남은 계단을 급히 내려갔다. "무슨 일이나고?" 그는 라자루스를 지나 돌로 된 모퉁이를 돌아 지하 묘지의 햇불이 이미 활활 타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왜 이렇게 일찍, 그것도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햇불을 다 켜 놓은 거야?"

"수도사님, 사고가 났습니다."

"죄수 말인가요?"

지붕이 무너졌어요.

"뭐? 다쳤어?" 이반은 그의 팔을 잡고 돌려세운 후, 마치 엄하고도 고통받는 수호자처럼 다급하게 그를 살폈다.

"아니요, 수도사님."

"보여줘!" 이반은 라자로의 햇불을 받아들고 그를 따라 베니온 터널 끝까지 들어갔다. 이반은 햇불을 높이 흔들며 돌 틈 사이로 발을 디디고 피해 상황을 살폈다.

그때 그는 벽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발견하고는 얼어붙었다.

"터널이 계속된다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썹을 치켜올리며 라자로를 향해 돌아섰다.

"그렇습니다, 수도사님."

이반은 손전등을 구멍 옆에 들었고, 그 불꽃은 바람에 살랑거렸다.

"여기 있어," 이반이 말하며 골짜기를 기어 올라갔다.

"하지만 저는 이미—" 라자로는 말을 멈췄다.

이반은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에 들어와 본 적 있어?"

"네, 수도사님, 하지만—"

"그렇다면 당신의 불복종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죠."

라자루스는 고개를 숙였다. 구멍을 통과하자마자 이반은 그를 돌아보았다. "자, 이리 와."

그럼 그때 가세요. 당신은 길을 알고 있으니까요.

나사로가 그를 따라 뛰어 들어갔다.

이반이 텅 빈 묘실들을 하나씩 밝히는 동안, 라자로는 그의 뒤를 바짝 따라갔다. 그러나 이반이 마지막 묘실에 가까워지자 소년은 뒤로 물러섰다.

"수도사님, 저기 안에 뼈가 있어요." 라자로는 돌맹이가 흩어져 있는 입구가 보이는 열린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반은 안으로 들어갔지만 라자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두건 아래로 귀를 쫓긋 세웠다. 이반이 썩은 천을 걷어 올리는 소리가 들렸다. 숨을 멈춘 소리도 들렸다. 뒤이어 찾아온 고요함도 느껴졌다. 그리고 이반이 지하실에서 나오자 라자로는 햇불에 비친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이반은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라자로와 자신 사이의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라자루스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수도사님, 그는 저와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는 사슬을 차고 있습니다."

이반은 급히 라자로를 지나쳐 갔다. "가야 해. 지금 당장!"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수도사님, 저 사람은 왜 저 안에 있는 겁니까?" 라자로가 황급히 그의 뒤를 따라가며 물었다.

"당신이 침대에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본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질문도 하지 마세요."

소년은 그의 날카로운 말투에서 분노를 읽어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수도사님." 라자루스는 이반의 빠르고 안정적인 걸음에 맞춰 발걸음을 재촉했다.

새로 발견한 터널 구간을 떠난 후, 이반은 라자루스에게 이전에 떨어져 나온 돌들로 구멍을 막도록 도왔다. 라자루스는 흙손을 가져다주고 새 모르타르와 물이 담긴 양동이를 채워주었다. 마침내 이반은 다른 수도사들이 벽이 가짜라고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자, 라자루스에게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있으라고 명령했다.

이반은 베니온 터널 복원에는 터널을 높이는 작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새로 발견된 가짜 벽에 새 벽을 세웠다. 만약 그의 동료 사제들이 그것을 발견했다면.

기괴한 잔해가 발견되면 필연적으로 소문과 소란이 뒤따를 것이고, 그로테스크의 잔해가 드러나면 모든 관심이 라자루스에게 쏠릴지도 모른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복원 계획을 곰곰이 생각하며 지하 묘지를 나와 수도원장 사무실로 향했다. 어쨌든 베니온 터널의 오래된 역사는 비밀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에 보니히 수도원장에게 터널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순간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

수도원 경내는 수도사들과 머리를 삭발한 소년들로 북적였다. 멀리서 정문 종이 울렸다. 마침내, 예복을 입은 기사 한 명이 안뜰을 가로질러 달려왔다. 마치 나사로처럼, 삼베로 만든 유령처럼, 그 소년은 눈구멍이 뚫린 가면을 쓰고 있었다. 머리에는 두건이 완전히 덮여 있었다. 그는 자신을 꾸짖는 수도사를 지나쳐 달려갔다. "미구알!"

달리기?"

소년은 걸음을 재촉하며 빠르게 걸었다. 수도원 저편에서 그는 그레이트 신부 앞에 멈춰 서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신부가 그를 발견했다. "미구알, 네 가면 눈 옆 부분이 찢어졌구나."

구멍이 났으니 이반 수사에게 꿰매달라고 하거나 새 것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세요."

"이반 신부님이 벌써 새 가면을 꿰매고 계세요. 신부님, 저말할 수 있어요?" 소년의 어눌한 말은 찢어진 가면 아래 숨겨진 심각한 입 기형을 암시했다.

"그럼, 어서 말해 봐."

"성문에 병사들이 있습니다! 아비뇽에서 온 병사들입니다! 마차에 신부님도 타고 계십니다! 붉은 색 예복을 입은 사제입니다!" 기사는 말을 더듬었다.

"그는 머리에 뭘 쓰고 다니는 거야, 애야?" 그레이트는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하얀 모자가 귀에 뚫어져 있네. 무릎 위에는 또 다른 큰 모자가 놓여 있네. 빨간 모자도 뚫어졌네."

"맙소사—" 그레이트는 소년에게 지시했다. "내 말 잘 들어! 아비뇽에서 추기경이 도착한다고 수도원장께 알려라! 자, 어서 가!"

소년은 고개를 숙이고 성큼성큼 걸어갔고, 그레이트는 그를 꾸짖었다. "미구엘! 도망쳐!" 기사는 뛰쳐나가 모퉁이를 돌아 질주했다.

종소리가 계속 울리는 가운데 그레이트는 정문으로 걸어갔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에 얇은 콧수염과 턱수염, 그리고 옥빛이 도는 녹색 눈을 가진 키 큰 병사가 문 앞에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험악하고 전쟁으로 단련된 얼굴에는 굵은 흉터가 깊게 패여 있었다. 그레이트는 빗장을 풀고 문을 활짝 열었다. 병사는 땅에 침을 뱉고 그의 주위를 돌아 걸어갔다. 지나가면서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투덜거렸다. "더 큰 종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귀가 더 커야겠군."

그레이트는 미간을 찌푸리며 본 대위의 침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블라시 추기경이 마차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다. 블라시는 그레이트에게 다가와 악마 같은 눈 위로 챙 넓은 모자를 눌러썼다. 그레이트는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블라시가 힘없이 내민 손에 입맞춤했다.

수도사는 활을 든 채 말했다. "각하, 가르디아 수도원은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레이트가 일어섰다. "모리스 그레이트 수사님, 각하. 손님 접대 및 방문 감독관으로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레이트 수사님. 저를 수도원장님께 모셔다 드리십시오.” 수사는 몸을 돌렸고, 블라시도 그를 따라갔다. 대장은 블라시 옆에 서서 부하 네 명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내게는 병사 200명과 말 14마리, 그리고 보급 수레 6대가 있다. 이들을 잘 관리해 주어야 한다.”

그레이트는 곧바로 성직자 소년을 손짓해 자기 옆으로 오라고 했다. "마구간으로 가서 페스토노 수사에게 손님이 왔다고 전해라. 당장 보살핌이 필요한 말 열네 마리가 있다고."

소년은 식발한 머리를 살짝 기울이고는 사라졌다.

그라테는 블라시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당신과 부하들이 배고프신가요? 원하신다면 식당과 주방을 바로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블라시가 으르렁거렸다.

그레이트는 말을 이었다. "각하, 일행은 오늘 저녁에도 머물 예정입니까?"

"며칠 정도요."

그레이트는 걸음을 멈췄다. "며칠이나 걸린다고요, 대주교님? 우리 수도원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블라시는 그를 재촉했다. "자세한 내용은 차차 논의하겠습니다, 수도사님. 우선 원장님부터 여쭙보죠."

안뜰 건너편에서 수도승들과 시종들은 행렬을 낚고 바라보았다. 방문객들은 모두 외국인이었다. 블라시는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지만, 본은 모두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관찰했다.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여기저기 쓰러져 재보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일행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본은 출입구 옆에서 손가락을 튕겼다. 병사 두 명이 그의 뒤에서 쓰러지더니 문 밖에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레이트는 블라시를 복도를 따라 수도 원장의 서재로 안내했다. 그는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너라!" 본은 다시 손가락을 튕겼고, 병사들은 즉시 응답하여 문 밖으로 나와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레이트, 블라시, 그리고 본은 서재 안으로 들어가 보니 수도원장이 등을 돌린 채 책꽂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니히 수도원장은 손에 든 펼쳐진 책에 온전히 집중 중인 채 천천히 몸을 돌렸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었고, 자신의 사무실에 추기경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경건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추기경님."

"수도원장님." 블라시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레이트가 끼어들었다. "보니히 수도원장님, 추기경님, 음—"

블라시는 "카디널 매슨"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그레이트의 소개를 도왔습니다.

'매슨'은 외경에 부적절한 접근 권한을 얻었을 때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레이트는 블라시에게 손을 내밀며 소개를 이어갔다. "마송 추기경께서 아비뇽에서 저희 수도원을 방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그레이트 수사님." 보니히는 그를 돌려보내며 책을 책꽂이에 다시 꽂았다. 그레이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교황 성하께서 전하신 소식입니다. 상임위원회 추기경이셨던 바실리스트 추기경과 린 추기경께서 별세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서신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보니히가 인정했다. 본은 방을 둘러보았다. 블라시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 의미에서 저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보니히는 미소를 지었다. "귀하는 외경 상급 평의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평의회에 대한 귀하의 헌신적인 봉사는 교황 성하의 눈에 상당한 호감을 얻게 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아비뇽에서 귀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도원장은 미소를 거두었다. "상부 평의회라고요? 저는 그저 주교일 뿐입니다. 추기경들만이 상부 평의회 위원을 말합니다." 블라시는 말을 고르느라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는 "어쨌든, 당신 과 이탈리아의 하급 평의회 수도원장은 이제 상급 평의회로 승진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도밍구스?" "맞습니다, 칸첼로 수도원의 도밍구스 수도원장님. 성하께서 두 분 모두를 지체 없이 교황 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수도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관리할까요?" 블라시는 손을 흔들며 그의 말을 끊고 안심시키는 어조로 말했다. "성하께서는 이곳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 삼엄한 경호가 따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원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성하께서는 책임자를 임명하실 때까지 제가 이 수도원의 임시 원장직을 수행하도록 지시 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추기경 한 분이 경호를 받으며 이탈리아의 칸첼로 수도원으로 향하고 있으며, 적절한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그곳에서 임시 원장직을 수행할 것입니다."

블라시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미소를 지었다. "보니히 대주교님, 상급 평의회 위원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외경에 대한 당신의 오랜 헌신적인 봉사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보니히 수도원장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린 추기경이 죽기 전에 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추기경은 교황 클레멘트가 외경 공의회에 숨겨진 목적이나 두 수도원의 역할, 그리고 공의회 공식 수장으로서 교황이 맡아야 할 의무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보니히는 블라시에게 질문했다. "매슨 대주교님,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린 추기경 서거 이후 임명된 인물들 중, 교황께서는 어떻게 외경에 관한 사안들을 알게 되셨습니까?

블라시는 "교황 성하께서는 그 이후로 외경 기록 보관소의 기록들을 직접 살펴보셨다" 고 반박했다.  
"하지만 화재로 기록물이 소실되었습니다. 교황께서 이미 불타버린 기록물을 어떻게 열람하실 수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타버린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황님을 직접 뵈게 되면 그런 자세한 사항들을 여쭙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니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각하, 괜찮으시다면 성하의 임명장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수도원장님." 블라시는 성직자 복장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수도원장은 편지의 밀랍 봉인을 뜯고 교황 클레멘트가 서명한 명령서를 읽었다.

보니히는 편지를 다시 접어 밀랍 봉인의 양쪽 면을 모두 살펴보았다. "어째서 교황 성하의 문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겁니까?"

블라시는 해당 문서를 옹호하며 "아시다시피, 협의회는 비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황께서는 외경에 나오는 두 수도원은 오직 추기경만이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그분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즉시 아뢰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보니히는 본을 바라보았다. 본의 초록색 눈동자가 그를 강렬하게 응시했다. 보니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블라시에게 털어놓았다. "나는 상급 평의회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늙고 지쳤습니다. 내 날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수도원장님, 성하께 당신의 상황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저는 단지 소환장을 전달할 뿐입니다."

"저는 봉사할 수 없습니다—"

블라시가 말을 끊었다. "아비뇽에 있는 맬로우 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이 당신의 새로운 거처가 될 것입니다. 내일까지 짐을 챙기십시오. 선장이 당신의 개인 소지품을 잘 보관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사들과 만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저를 새 수도원장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하."

"수도원장님, 성하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 같군요."

보니히는 깊은 실망감을 표했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지하 묘지에 납골당이 하나 있는데, 아마 평생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주교님, 장례 절차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성하께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손님 숙소에서 머물겠으니, 대주교님께서 계속해서 대주교직을 수행해 주십시오. 모든 일은 대주교님께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경비병들과 말들이 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당신을 호위할 사람을 배정해 드릴 수도 있겠군요."

블라시는 그의 말을 꿩고 말했다. "저는 제 길을 스스로 찾겠습니다, 수도원장님."

"네, 각하." 블라시가 본과 함께 서재에서 나가자 보니히는 고개를 숙였다. 보니히는 창가로 돌아서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위조된 편지가 그의 힘없는 손에서 떨어졌다. 그는 이반과 그 기형적인 나사로 소년을 떠올렸다. 자신이 직접 파서 마련해 둔 묘실을 생각하며, 아마도 자신의 유해는 오랫동안 섬겨온 사랑하는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니히는 사무실에 들어박혔다. 블라시는 수도원 부지와 시설을 꼼꼼히 살폈다. 본 대위는 병사들을 이끌고 수도원 곳곳을 수색하며 주요 지점이라고 판단되는 곳에 경비병을 배치했다. 해가 질 무렵, 대위는 수도원을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탈바꿈시켰다. 출입도 불가능하고, 모든 모퉁이에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병사들이 배치되었다.

다음 날 아침, 예배 직후 보니히 수도원장은 동요하는 수도사들을 진정시키며 아버님으로 전근 가게 되었음을 알렸다. 정오에 그는 마차에 올랐고, 기마병들이 그를 호위했다. 블라시는 신중하게 서둘러 움직였다.

새로 부임한 수도원장은 수도원의 최고위 수도사들, 즉 문석의 존재와 수도원의 진정한 목적(수도원의 수호자 역할)을 알고 있는 사람들 만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소집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교회 심문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지던 것처럼, 하급 평의회 수도사들의 조직을 해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추기경으로서 블라시는 마녀사냥 기술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알고 있듯이, 종교 재판의 방법은 엄격하고 단순했다. 즉, 집회를 열고, 절대적인 권위를 내세워 잘못을 자백하도록 요구한 다음, 서로에 대한 증언을 통해 대중을 분열시키는 것이었다.

블라시는 소집된 원로 수도사 회의에서 모든 사제에게 편지를 써서 해질녘까지 자신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세 가지 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사제들은...

수도원의 모든 시설과 관행 중 개선할 만한 사항들을 나열하라고 했다. 블라시는 제안된 개선 사항들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 목록은 그의 계약의 핵심이자 종교재판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다음 두 가지 목록에서 수도사들의 주의를 돌리는 데 효과적이었다. 블라시의 두 번째 요구는 사제들이 동료 사제들의 '수도사답지 못한' 행동을 목격한 모든 내용을 나열하여 그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블라시는 수도사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글을 쓰도록 요구했다. 그는 모든 서면 자백은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고 수도사들에게 알렸다.

격분한 고위 수도사들은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블라시의 운동은

가혹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 과정은 곡식 탈곡기의 예상 결과처럼 알곡과 쭉정이, 즉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을 가려내는 데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훌륭하고 존경받는 수도사들을 제외하고 나니, 행실이 의심스러운 사제는 단 일곱 명만 남았습니다. 그 일곱 명 중 블라시는 오디노 수사를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똥똥하고 술주정뱅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이트스톤 개막식에 참여한 블라시는 이탈리아인의 이름도 지웠는데, 그가 보기에 프랑스의 대의명분인 이 행사에 프랑스인만 참여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섯 명의 승려만 남았다.

블라시는 수도사 다섯 명을 차례로 수도원장의 서재로 불러들였다. 그는 각 수도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교황 클레멘트와 프랑스 국왕 필립의 공동 명령을 받아 게이트스톤을 영국군에 대한 무기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각 수도사에게 크레스에서 영국군을 몰아내는 데 기꺼이 협조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명단에 오른 다섯 명의 수도사 중 클로디우스와 그레빌은 블라시가 문석을 찾는 것을 돕기로 했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으로 수도원 지하 묘지의 관리자로의 재배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반과 오디노의 자리를 원했습니다. 블라시는 그들이 문석을 찾는 것을 도와준 후에야 재배치에 동의했습니다. 남은 세 명의 수도사 중 그레이트 수사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블라시가 은근한 설득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위협하자 결국 그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의 수사는 블라시를 돕기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문석을 건드리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라시는 그들의 완강한 거부에 실망하여 그들을 서재에서 내보냈고, 열린 문 바로 밖에 서 있던 본 대위에게 은밀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결과, 본 대위는 두 수사를 데리고 교외로 나가 휴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보니히 수도원장은 입술이 흙으로 영구히 덮여 있었다.

블라시는 자신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것 같은 놀라운 기분을 느꼈다.

그는 단 세 번의 목숨을 소모하여 가리디앙 수도원과 그곳을 지키는 문석을 장악하고, 세 명의 고위 수도사를 자신의 조력자로 확보했으며,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를 철저히 감췄다.

그 후 며칠 동안 블라시는 수도원장의 서재에 틀어박혀 오랫동안 보관되어 온 수도원 원고와 외경 보관소에서 뜯어낸 찢어진 페이지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도원 성당의 설계도도 있었다. 영국군을 프랑스에서 몰아내는 더 큰 임무에 몰두해 있었지만, 블라시는 수도원에 거주하는 수도사들과 시종들이 본의 점점 더 강화되는 요새에 순응하면서도 일상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썼다.

## 분위기처럼요.

~\*~

수녀원 마구간 너머로 얼굴이 가죽처럼 거칠어진 수도승 한 명이 조용히 명상에 잠겨 서 있었다. 오랜 세월 마구간 관리인으로 일하며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사제복을 입지 않았다면 그저 농부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술이 적은 갈색 머리카락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정수리에는 무더운 여름날 야외에서 일하며 생긴 갈색 반점들이 가득했다. 페스토노 수도승은 수석 수도승이자 하급 평의회 위원이었다. 마구간 과 말들은 물론, 가르디앙 수도원과 오텔레앙 마을의 우편 교환소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수도원 성직자 소년들까지 모두 그의 보살핌을 받았다.

대장장이의 손을 가늘고 긴 옷자락 허리에 얹은 페스토노는 희미해져 가는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머리 위로는 저물어가는 햇살이 높이 솟은 구름을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였고, 그 모든 색채는 마치 천상의 불꽃처럼 반짝였다. 차가운 황혼의 공기 속에서 말의 고삐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페스토노는 팔을 내리고 씩씩거리며 마구간 앞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는 해가 지기 몇 시간 전에 우편물이 배달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건물 모퉁이를 돌아 사제는 등불을 든 예복을 입은 인물을 보았다. 수도원 북쪽 문에서 마구간으로 다가올수록 그 형체는 높이 솟아올랐다. 페스토노에 가까워지자 그 형체는 "우편 배달이 왜 지연되는 거지?" 라고 외쳤다. 페스토노는 자신의 질문으로 대답했다. "내 전령 소년을 보셨습니까?" "정말이지, 오래전 일이네요. 정문에서 그레이트 신부님과 미구엘 소년과 함께 있었죠. 제가 모은 물건들요." 그가 지금쯤 마구간에 도착해 있어야 하는데."

페스토노는 수도원 앞쪽에서 그림자를 발견했는데, 말발굽 소리가 들리자 그림자가 빠르게 가까워졌다.

"군인들이 사방에 있군." 그림자 같은 수도승이 등불을 내리며 불평했다. 그는 페스토노 옆에 멈춰 서서 다가오는 성직자 소년을 마주 보았다. "오랫동안 문 앞에서 붙잡혀 있었지. 페스토노, 지금 말하는 데, 이 일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어. 선의를 가진 수도원을 다스리기 위해 군대가 필요한 곳이 어디 있겠어?"

페스토노는 허리에 손을 얹고 질주하는 종자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전령은 말을 고삐로 묶었다. 페스토노는 머리를 식발한 젊은이가 말에서 내리자 고삐를 잡았다. "이제 어둠 속에서 말을 돌봐야 하다니! 당장 늦은 이유를 설명해라!" 페스토노가 그를 꾸짖었다.

기사는 허리를 굽히며 고백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수도사님. 말은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원하시면 가져가세요. 우편 주머니를 정문 근처에 떨어뜨려서 찾아야 했어요.

“반나절 동안이나?” 페스토노는 말을 마구간으로 끌고 들어가며 물었다. 그러더니 멈춰 서서 몸을 돌렸다. “왜 말이 나한테 불평하는 거지? 네가 또 말을 거칠게 몰았나, 야야?”

전령은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수도사님. 제가 돌아오는 것을 예상하시리라 생각하여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비뇽에서 온 전령도 늦게 도착했기에 저도 오를레앙을 늦게 떠났습니다. 그래도 정문에서 말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올리언스에서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 제공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스토노는 말의 고삐를 묶어 둔 기둥에 툇 던졌다. 다른 수도사는 더 잘 보이도록 등불을 들어 올렸다. 페스토노는 말을 이었다. “늦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신이 ”

날이 밝자마자 내게 보고하라. 마구간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그러겠습니다, 수도사님.”

페스토노는 고삐를 살짝 당겨 묶인 상태를 확인하고 말의 옆구리를 토닥였다. 그런 다음 가죽 갑옷 주머니의 끈을 풀고 말에서 벗겨낸 후 다른 수도사에게 주머니를 건넸다. “여기 네 갑옷이다. 네 등불을 빌려주겠다.” 그들은 갑옷을 교환했다.

페스토노는 몸을 돌려 등불을 높은 기둥 고리 쪽으로 들어 올렸다.

“수도사님, 제게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전령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사제는 귀를 기울이며 등불을 만지작거리면서 대답했다.

“내가 가지고 있어!” 다른 승려가 불평하며 말했다. “뭐 하는 거야? 기다려!”

페스토노는 돌아보니 한 병사가 우편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마구간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는 “신부님, 제 명령은 당신과는 상관없습니다. 단지 우편물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페스토노와 그의 종자는 수도사가 마구간에서 뛰쳐나와 뒤따라 소리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군인이 말했다. “누구 명령이지? 돌려줘! 기다려!”

페스토노는 손을 흔들며 전령을 불렀다. 그는 말발굽을 들어 올렸다.

그는 자신의 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건강 상태를 살피고는 종자에게 속삭였다. “잘 들어라.

자네에게 또 다른 임무가 있다. 오늘 저녁 마구간, 그것도 다락방에 숨어 있어야 한다. 경비병들에게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날이 밝기 전에 아비뇽으로 떠나야 한다.”

“그렇군요, 수도사님.”

“당신은 교황 성하게 즉각적인 답장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편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황께서 편지를 읽으실 때까지 집무실에 계셔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황 앞에서 당신의 위치를 지키십시오. 제 이름 아십니까?”

“그러겠습니다, 수도사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마땅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젊은이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글로 쓰든 말로든 답장을 보내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페스토노가 말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쯤이면 당신은 탈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바람을 타고 가거라. 이번에는 보니히 수도원장의 말을 타게 될 것이다."

전령은 그 숫말의 명성을 알고 있었기에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올라가 보시오." 사제는 종자를 천장 들보 위로 손짓으로 안내한 후, 등불을 챙겨 북쪽 수도원 문으로 돌아갔다.

밤이 깊어지고 수도원 기숙사에 있던 대부분의 수도사들과 시종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페스토노의 방에서는 등잔불이 켜진 책상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위에는 교황 성하게 보내는 양피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페스토노는 서명을 하고 깃펜을 잉크통에 넣은 후, 입김으로 잉크를 말렸다. 그는 블라시가 가르디아에 도착한 이후의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한 편지를 읽었다.

편지의 목적은 분명했다. 교황 클레멘트에게 아비뇽 출신의 추기경을 보니히 수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했는지 묻는 것이었다. 그는 클레멘트에게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고 고백했다. 즉, 공의회 외부의 누군가가 수도원이 보관하고 있는 '성물'의 존재를 알아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페스토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등잔불 위에 칼을 올려 밀랍 덩어리의 한쪽 모서리를 녹인 후, 녹인 밀랍으로 편지를 봉했다. 그리고 입김으로 봉인을 말렸다.

갑자기 등잔불이 깜빡거렸다. 그의 손에 든 편지가 흔들렸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페스토노는 고개를 돌려 딱 닫힌 창문을 확인했다. 부자연스러운 공기 속에서 오한에 그는 기침을 하며 입김에 낀 김을 확인했다. 사제는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 몸을 돌려 어두컴컴한 방 구석구석을 살피며 그녀를 찾았다.

그러나 그는 저 멀리 구석에서 있는 그림자만 발견했다. 그는 옆으로 비켜서서 등잔불의 빛이 비춰 그림자 형체를 드러내도록 했다. 그의 빠른 녹아내리는 듯했고, 마치 불타는 타르 강이 그를 덮치듯 공포가 그를 집어삼켰다. 돌의 정령이 그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채 서 있었다. 번뜩이는 검은 눈과 긴 머리카락을 가진 그녀는 그의 나약한 영혼을 비웃고 있었다. 사제는 수도원의 모든 수도사들이 알고 있듯이 그녀를 알고 있었다. 수 세기 동안 음란을 일삼아 온, 괴롭히는 악마이자 음란한 자, 서큐버스의 여왕이자 지배자였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테라스에 늘어선 모든 기괴한 형상들의 사악한 모계 근원.

"안 돼!" 페스토노는 편지를 등 뒤로 휙 숨겼다.

"이봐요, 성스러운 분이시여. 제가 당신을 그토록 기쁘게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루시파엘은 천 명의 여인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의 목소리로 말했다.

"부디 부디 저와 작별 인사를 해 주십시오."

"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신사분." 그녀는 바웃으며 말했다.

"저는 제 자신을 하느님께 바쳤 습니다." 페스토노는 중얼거렸다. 수도원의 많은 수도사들처럼 페스토노에게도 성당 꼭대기에 날개 달린 조각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래전에 설치된 것이었다.

"그게 당신이 말하는 신인가요?" 그녀는 다가오면서 비꼬는 말투로 물었다.  
"그분은 너의 주님이시며 왕이시다. 사라져라, 여자 유령아!"

루시파엘은 그의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손을 등 뒤로 깎지 끼고는 다소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페스토노, 이 나뭇잎은 대체 무엇을 숨기려는 겁니까?"

사제는 얼어붙은 듯 떨면서 서 있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거룩한 땅에서 나가십시오."

그녀는 마치 숨겨진 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듯 그의 주위로 몸을 기울였고, 페스토노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는 등불에 비친 그녀의 풍만한 가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에 드십니까, 나리? 마음에 드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유혹적인 속삭임으로 물었다. 페스토노는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사라져라, 악마 같은 창녀야! 신성하고 거룩한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건대!"

그녀는 일어서서 물었다. "사라지라고? 날 소환하는 편지를 써놓고는 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그녀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고, 편지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그는 손을 휘 빼냈고, 종이는 부서지기 쉬운 재 조각이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다.

"자, 그게 그렇게 끔찍하거나 무서운 일이었나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팔을 느슨하게 두르며 물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녀가 검은 손톱이 있는 손가락을 흔들자 그의 목은 말을 잃었다. 그는 다시 문을 두드렸지만, 방 안 어디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육신의 맛을 본 지, 그리고 내 맛을 본 지 여러 계절이 흘렀군요. 지금도 당신의 허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하지만 그리움의 고통에서 당신을 구해줄게요. 침대에 누우세요. 하지만 내가 당신 아래에 눕지는 않을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그의 목소리에 화답했다.

"안 돼!" 그는 쏘아붙이듯 말하며 문과 벽 사이 구석으로 물러섰다.

그녀는 가볍게 방을 가로질러 그를 구석에서 일으켜 세우고 침대로 이끌며 속삭이듯 위로했다. "성자시여, 제게 당신의 씨를 한 번만 더 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떠나보내겠습니다."

페스토노는 몸을 뒤로 빼 벽에 등을 기댔다. 루시파엘은 그를 책상과 침대 사이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아직도 기운이 넘치시군요, 나의 활기 넘치는 성자시여. 그런데 제가 당신 눈에 가치 없는 존재인가요?" 그녀는 그의 옷자락을 바로잡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쳐다보았다.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두 사람의 얼굴 사이 좁은 공간

에서 페스토노는 이마와 몸통에 십자성호를 그었다. 루시파엘은 뒤로 기대앉았고, 그녀의 검은 눈은 노려보았다.

그녀는 사제의 턱을 움켜잡았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개의 송곳니 같은 날카로운 앞니가 그녀의 입에서 드러났다. "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내가 당신의 허락을 구하는 것은 오직 ~ 때문에만이다."

당신은 그것을 줄 마음이 있군요. 선택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존엄성뿐입니다. 너."

"그런데 왜 계속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그것들은 모두 죽은 것들이고, 햇볕에 노출되어 돌처럼 굳어버렸잖아요."

그녀는 씩 웃었다. "수천 명이 죽어야 수천 명이 살 수 있죠. 그게 삶의 본질이에요." 죽음. 당신은 욕망과 죄책감 외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네 그로테스크 조각상들은 모두 죽었어요! 전부 다요! 그저 성당 꼭대기에 있는 생명 없는 조각상일 뿐이에요!"

그녀는 그의 눈을 살폈다.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고, 성자시여. 제게 씨를 빌려주실 건가요, 아니면 거절하실 건가요?"

"너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녀는 검은 손톱을 휘둘러 그의 말을 끊고 다시 그의 목소리를 빼앗았다. 그는 몸을 돌리려 애썼지만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검은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며 찡그렸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애초에 당신의 동의는 필요 없었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의 얼굴을 쓸어내리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다. 한순간 사제는 몸이 굳어지며 떨렸다. 그의 크게 뜨인 눈에는 눈물 이 고인 채 떨리는 손이 책상 위의 밀랍 문은 칼날을 향해 뻗어가는 모습만 보였다.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성직자 여," 루시파엘은 공포에 질린 그의 말에 말했다. "내 것을 내게 바쳐라. 집어 들어라. 사용해라. 나는 이제 너에게 명령하는, 추방당하고 방황하는 신이다."

그녀는 마치 여러 여자를 한꺼번에 웃듯 크게 웃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옥타브씩 낮아졌다. "악마 신 개 유목민만큼 사악한 자는 결코 살지 않아."

갑자기 그녀의 머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썩어가는 자칼의 머리처럼 일그러졌다. 새로 생긴 주둥이에는 피부가 벗겨져 뼈가 움푹 패인 부분이 드러났다. 역겨운 악취가 그녀의 머리에서 피어올라 방 안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때 그녀는 그의 어깨를 움켜잡고 그의 귀에 속삭였다. "— 나처럼." 페스토노는 그의 손이 칼을 들어 올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루시파엘은 떨리는 칼날이 사제에게 점점 가까워지자 호기심 많은 개처럼 고개를 갸우뚱하며 가슴을 어루만졌다.

"성자시여, 편히 쉬소서." 그녀는 짐승의 숨결 같은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그를 위로했다. "내가 당신을 인간의 불타는 고통에서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등잔의 심지는 거의 비어가는 기름통에서 마지막 기름 방울까지 빨아들였고, 불꽃은 마치 격렬한 불꽃 춤에 휩싸인 듯 불규칙적으로 흔들리며, 멈추지 않고 감싸는 어둠을 향해 발버둥 치고 살아남으려 애썼다.

수도원 기숙사 밖과 안뜰 전체에서, 어떤 병사도 사제 숙소의 좁은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지 못했다. 아무도.

희미해져 가는 불빛과 점점 어두워지는 방을 보았다. 어떤 수도승도 평화로운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밤은 천천히 타들어 갔다.

~\*~

날이 밝기 전, 처절한 비명 소리가 기숙사를 뒤흔들었고, 졸린 눈을 비빈 병사들과 수도사들이 복도를 따라 페스토노의 방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그의 감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방 안은 엉망진창이었다. 가구는 뒤집혀 있었고, 개인 소지품은 산산조각 나 있었으며, 갈기갈기 찢어진 양피지들이 마치 눈처럼 바닥과 가구를 뒤덮고 있었다. 수도사들이 방에 들어왔을 때처럼 황급히 도망친 것은 수백 조각의 양피지 때문이 아니었다. 병사들이 충격을 받아 주저앉은 것도 방의 어수선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벽과 바닥이 온통 피로 뒤덮여 있었고, 방 안에는 쇠 냄새와 같은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기 때문이었다.

그들 앞에는 페스토노가 방 한쪽 구석, 뒤집힌 침대 옆에 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핏자국이 진 무릎 위에 망치를 쥔 채 누워 있었다. 그의 다른 손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듯 침대 프레임에 기대어 있었고, 부어오른 손바닥에는 칼날이 박혀 있었다. 사제는 문 앞에 모인 군중을 발견하고는 무릎을 꿇고 일어나 칼날을 손바닥과 침대에 더 깊숙이 내리치며 예수님의 말씀을 외쳤다.

십자가형.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멍한 눈빛과 눈 흰자위는 마치 광견병에 걸린 개의 초점 없는 눈빛처럼 방 안을 이리저리 굴러다녔다. 병사들이 달려들어 망치를 휘두르는 그의 팔을 막으려 했지만, 그는 병사들 중 한 명의 얼굴을 짓눌러 버렸다. 꿈쩍 못 하고 혈떡이던 페스토노는 쓰러졌고, 병사들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풀어주었다.

안타깝게도 페스토노는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 장례 준비를 하던 중에야 몇몇 동료 수도사들이 그가 칼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제가 광기에 휩싸여 스스로 거세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그의 숙소를 샅샅이 수색했음에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라시는 자해 사실을 알게 된 수도사들에게 그 자리에 남으라고 명령했다.

조용히 페스토노의 광기를 바닥과 벽에서 깨끗이 닦아낸 후, 고인이 된 수도사의 묘를 봉인하라. 기숙사 방에 무기한으로 머물게 되었다. 그리하여 천으로 몸을 감싼 페스토노 수사는 한때 고(故) 보니히 수도원장을 위해 마련되었던 화려하고 잘 꾸며진 지하 묘지의 새로운 거주자가 되었다. 그리고 블라시에게 다행스럽게도, 이 끔찍한 광경은 그가 아직 품고 있던 더 중대한 목적에서 거주하는 수도사들의 관심을 돌리는 데 효과적이었다.

[ 5 장 끝 ]



이 문학 작품은 오직 헌정의 의미로 창작되었습니다.

## 에드거 앨런 포 (1809-1849)

— 그의 업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



~[고딕노블.org](https://www.gothicnovel.org)~